

수고하고 무거
온 짐과 돌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라케복음 11.26

國際情勢如何에票數七左右

極東政策엔不變이豫測

解 說

戰爭史
支那上野圖書

주
는

十一
목
은

極
三
月
三
日
民

東 日 的 公 衆

木
三
木

政 古대 것이 그 보

筆

宋

의

이
다

↑

續

變

○

36

로 (3) 세 계

割

劍

利
利

국판

79


基督新報


 KOREAN CHRISTIAN NEWS

10月15日(水)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 九 台
主 筆 田 榮 澤

社説

基督者の祖國愛

人間의 自己의 歸心과 祖國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古金史의 달초순에 關天節을 지냈다. 수난민족과 함께 고요히 지냈다. 그러나 잠시 성접했다. 구태여 그날을 기억하려는 이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아니하였다. 비록 낙후된 문화가 파괴되어져 가는 나라일망정 이 후손들의 마음자리가 이렇수야 있으랴! 또 한편 그와는 반동으로 과언이 빠진 물동품같은 역사를 되 고집으로 지키자는 이들도 있 어 보임은 자랑할 일도 아니라 基督教들은 이에 어퍼하여야 할가 우리는 애수의 歸心과 祖國愛의 태도를 한번 더듬어 보고 스스로 한성하자.

예수는 세상만국 만민을 구속하려는 救世主이면서도 『인자는 나사렛에 수라』 하시면서 역사없는 나사렛이었던 언제나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사당하시고 불렀던 것이다. 한송이의 꽃, 참새 한 마리, 한송이의 비달기, 잎만 무성한 무화과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입에서 흘러나왔던 사실은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의 풍경에서 받은 인상에서 얻은 말씀하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攝理)하시는 사실을 보셨던 것이다. 『물에 百合花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나... 하나님의 이렇게 그리스도』 하였고 『참새 한 마

신리의 말씀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郷土적 향기를 맛보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 예수는 몽골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이사나 때로는 세자들에게 「차라리 이스라엘의 흠이 버린양에게로 가라」 하였고 어썌 안식일에 회당에서 十八年間 귀신때문에 말으며 이러나지 못하던 女人을 고쳐 주셨을때 會堂長이 본내는 것을 보시고 「十八年間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 집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의 祖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스라엘을 극진히 옹호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우선 모르는 그에 무상을
 만물을 몰러가면서 사당하신것
 은 『아!』에 무상을 아에 무상을
 아! 『先』을 몰러가 죽이고 니게
 파송된자들을 몰로 치는자여
 감히 제사끼를 달게아래 모
 음살이 내가 너회 女를 모으
 라한일이 몇번이나 그러가 너회가
 권치아니 하였도다. 『하신 말
 음으로 너너히 알수있다.

△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음을
 잘못 인식하고 예수님의 참마
 음의 뜻을 잊어버리기 쉬운때가
 없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이렇
 게 절절한 창도심과 國心이
 있었으나 그때문에 社會의 出義
 나 代表의 의악을 몰라하신 일
 은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우리

미국의 의회가 있는 것은 이미 공화
파에게 있다는 것인데 카탈(여
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후보
스타몬슨은 四一세-센트, 아
이제-아는 四七세-센트 의
지지를 받는 다함이 그 사실일
듯하다.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민주당의
二十년간의 정책을 다시 세습시
키는 것보다 수완있고 인정이 깊
고 경험이 많은 아이크에게
기우러진 듯하면서 다만 그가
은수한 정치가가 아니고 군부
의 출신이라는 데 위험시하여
투표를 주저한다는 의견이 많
아한다. 최근 『한국일보』라는
전쟁기류이 미국에서 잘 팔리
는 것도 한국전쟁의 참상을 여
실히 그렸기 때문에 전쟁을 실
화하는 미국인들의 심리상태로

政黨보다人材

정당에 대한 민심을 살펴보면 민주당(民主黨)은 二十世紀에나 독립하였다는 것이 四十세 이하 사람들에게는 정부는 언제나 민주당이라야 되는 줄 아는 것이라 한다. 다음으로 뉴-리프워크이라는 것으로 노동자 농민생활에 공덕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공무원과 그 가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다.

공화당(共和黨)은 변동성이 많은 미국민 심리에 생생한 새맛을 주려는데 일기가 오르내리고 전쟁정세로 세금은 높은 것을 세하라라고 보는 것과 민주당 정부내의 오직(汚職) 사건과 탐공정책(防共)의 무기력을 광물개발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이가 많음이 주목되는 일면
(一圖)이다.
스리본은 세는 율화성이 많은
새로운 업종로 자기의 논지
(論旨)를 솔직히 공개하는
대중적 정치가로 나타났다. 그러
나 기독교(신교)측에서는 그
의 離別사건이 말성을 부리고
있다. 그때문에 스氏は 최근
까지도 입후보를 주저하였으나
캐슬릭측에서 強勸한 모양이다
과라서 선거위원장은 캐슬릭의
거두고 최근에는 캐슬릭측에서
스氏을 호 성명까지 발표하는
대 이르렀다.
아이크(艾)는 전시와 평시
를 융하여 세계적정신을 밝히려
는데 스氏보다 월등한 관용과
매력이있고 정치가는 아니었으

오른 十九일은 평신도주일
(베. 뎀스. 웨. 일)이다. 평신
도주일은 십주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평신도로서 자기
이념의 성안은 평신도에게
매진한 신도로 하여금 교회의
중요성과 전도의 중대성을 알
게하고 피차 주의를 얻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十九일은平信徒主日

이날 속에 하나님과 예수그리
스로 함께 밭잡고 날마다 그와
함께 삼을 생명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삶의 표명하는 교회
로 삼자는 것이다.

한편 속에 하나님과 예수그리
스로 함께 밭잡고 날마다 그와
함께 삼을 생명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삶의 표명하는 교회
로 삼자는 것이다.

極東問題는如何

두 임후보에게 대한 승부의
결론은 十一月三日전까지의 국
제적세 여하에 크게 변동될 것
이라 예측되는바 민주당이 전전
선언이후 쓰러진정체를 써왔
으나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등
에서 둘러싸는 사실에 비추어
세 아이젠하워는 구라파를 중
심한 군비강화를 주장하고 아
세아는 관심의 약한것이 주목
된다. 최근에는 아이젠하워가 아
전쟁은 아시아인들로 싸우게 하
는 것이 잘못된 母性愛가 자
식을 망치고 어물거리는 바에
준해 전쟁을 망치는 일을 제
정할 것이 育目的 愛國心과
同정심이 國과 民族을 危機
에 몰아 넣는 사실이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예수님에
서는 때로는 그 일정에 맞지
아니하는 지독한 語調로 '이
독사의 사기들을 너희가 어떻게
제지하느냐'의 피로부려... 파우에
서 '폴리 義로운 피가' 나 너
희게 도라가라' 하면서 반성
과 회개를 촉구하셨던 사실을
기억 하여야 할 일이다.

新舊敎友會 1 次 交換 론三會議에 는 傍聽도 參席

백림(伯林)에서 동성애심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기독교도의
충성을 바라는 수의인 신앙
전회의에서 캐롤릭 백림대회
에 에제-지를 교환 하였다.
캐롤릭대회가 론트신앙전회
의에 보낸서면에는 다음과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너희의 하는 일에 하나님
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
러분의 독려하는 일이 전기독
교도로 하여금 우리주의 뜻에
가한한 목표를 가까이하며 하
나님을 믿는 모든사람을 동일
에 달성하기를 기도한다.
론트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전
회의의 이 에제-지를 감사
하며 동회의의 이름으로 '그리
스도의 영하신대로 전 그리스
도교도의 동일을 위하여 캐롤
릭신도와 마음을 가다하여 기
도하고저 하노라' 하는 뜻을
감조하였다.

人事

△마리온 쇼-선교사 지난 十
一日 歸國에 應任
△李大儒氏(在日韓僑Y理事長)
지난 七日 本國訪問
△朴永昌氏(在日韓僑Y協同會
同上)
△朴東康氏 美國留學途次八日來
△徐大庸君同上
△田澤孝文氏(本社主筆) 祖國訪
問을 마치고 十二日歸任



△아 말을 처음 드릴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적 변명도
하고 싶었으나 한두가지 사실
제문제에 대처하면 그 말이
부당한 말이지 않아 보인다. 다
시 한번 더 생각하면 좋은말
민족의 총집이다. △말 재조
가 좋으면 동사나 해 먹지
하던 시골 늙은이들의 말이
기억난다. 어학에 재조나 있었
다면 외국인의 앞치마 도둑이
나 하고 살아나갈 것이다. 하
는 말임을 안다. 이 얼마나
의지가 없는 인간의 말이 아
닌가 민족성에 이런 무기력이
우리들 내쳐 오늘에 이르렀
다면 오늘의 아첨들을 무려
무삼하랴! △하나님께서는 각나
라 각사람의 인격적 독립을
인정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
들 중에도 아직 이 결정을
내려가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아
담을 부리고 세 민족과 동등
함을 같은 신앙안에서도 불공
고 다시 살고 썩어 누울 바
로 드고는 볼수 없게 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영세화복은 고사하고
악담 배설 혐의모략 중상의
총알은 죽어자가면서도 누우쳐
지않는예수를 비방하던 강도
만 나음이 있어보이지 아니한
다. △언제나 이 백성에게 축
복이 임하여 사랑의개념대로
살고 썩은 마음으로 용서하
는 기조가 확립하랴?

公告 聖經通信科創設에 特別注意事項 總會教育部部長

금번 교육부에서는 총회내 여러교우들에게 성경을통하
고 신학의 기초를 확립할 일제하기 위하여 성경통신과창설을
준비하였는바 현재 요요하마에 개서서 수고하시는 학우
만신교사의 유능한 호의를 얻어 성경통신과를 본교학부
내에 새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 성경통신과는 각 믿는
사람의 영적 성장과 성령충만을 위한 것임을 도와주려고 예비한것이
다. 이 통신과는 성경과와 신학교 대신으로
공부할것이 아니고, 이 여러 공부는 것을 도와주며 이
여러공부를 더욱 잘하게 하기위하여 예비하는것이다. 이
성경통신과를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 말씀의 뜻을 많이
깨닫게 되고 영적 성장을 더욱일신으로 공부할 마음이 이
러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이 통신과를 공부
하는중에서 은혜를 받으며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
라는 바이다.

一 經營

1 이 통신과는 신학전서를
十二권으로 나누었다. 차서는
신학의 차서대로 마태복음을부
터 시작하고 쉬운 사도행전
부터 시작하여 온 신학을
마치도록 되어있다.

2 高等科規則

3 이 통신과를 공부할때에
각각 혼자 자기집에서 하여
도 좋고 한교회중에 공부하
는이가 여럿이 있으면 혹은
한말에 한번씩 목사나 전도
사나 장로들과 한가지로 모
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
하는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
이다.

二 工夫規則

1 初等科規則
7 권의 공부할 편의 성경
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
어본후에 논는말에 따라 대
답하여 기록하여 붙는 말은
다시 읽어야 없이 모든 말
의 원호만 기록한 후에 대
답을 기록할것 각 붙는말의
대답은 대개는 그 성경가운
대이다.

2 高等科規則

그 초등과는 통신과 세에있
는 붙는 말대로 성경을 상
고하여보고 답안을 기록하고
고등과는 본교회목사나 장로
와 전도사앞에 가서 그 복
사나 문서를 지정하는 붙는
말을 성경이나 성경개 관한
주석등을 모지 않고 답안을
대답한다.

3 高等科規則

고등과를 준비할것
답안은 六十점이상이라야함
1 답안을 모도 받은후에
고등과를 준비할것
답안은 六十점이상이라야함
1 답안을 모도 받은후에
고등과를 준비할것
답안은 六十점이상이라야함

黎明期亞細亞基督青年

自由·平和·民族幸福을開拓

다氏相互提携를強調

인도 (印度) 나가를 YMOA 총무원... 이 같은 우리에게도 많은

平和의曙光이보이는亞細亞

나는 금번에 미국과 캐나다... 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과거에 쓸데없는 오... 건설에 이바지 하여야 할것이다

對立된世界에 印度의努力

가세아에 있어서는 인도와... 이다.

信仰職制會議報告

(5)

전반에 체코슬로바키아 로마... 회가 열려있다.

협한 대립이 폭발하지 아니하... 게 공헌하기 바란다.

黎明期民族과 基督青年의使命

이 같은 중대한 사명을 지고... 질병은 민족의 수명(壽命)을

朴東淑嬢渡美

教育心理學專攻을



박 동 숙 양

이와 (梨花) 대학 사회생활과... 한 박현명 (朴鉉明) 목사의

회의기간중에 있었던 일중에... 목은 부치지않고 사도바울의선

을 위축시켜 민족의... 十二歲一歲로나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 립 민주정신을 함양 시키고있

은 금번에 미국 샌다-키주... 한

양으로 말미암은 웅대(雄大)... 二十五六七일은 주로 각

新任會長協力에約束

婦人傳道連合會修了

새로운 대한기독교 부인전도 연합회는 지난七日과八日(二日間)에 고교교회당에서 제4회 총회를 열었다.

각 교회부인전도회 대표로 참석한 대의원은 二十九名이었고 개회예배는 백선교사(女)의 「요계」와 아무담의 신앙을 본받자」는 찬양을 듣고 본회의에 들어가 각부보고를 접수한후 임원을 개선했다.

유과 같다.

會長 朴明희 副會長 朴平성 書記 金不일 副書記 趙正희 會計 金相은 副會計 裴春은 傳道部長 趙正熙 教育部長 一

학부성 供養部長 高炳성 顧問 曠正熙 심은택전도사 討論事項에는 다음案件이 협의 결정되었다.

- (一) 회장을 개정하고 임원은 여전도사를 주로 구성할것
- (二) 오빠야마지방에 집중전도를 할것과 각교회단위 부인회로 순회전도 집회를 열기도한다
- (三) 총회산하 전지역을 八區로 나누어 교육할것 內容은 한글 쉬운한문 취미아동 교육 등으로 한다.
- (四) 고등성경학교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韓國人形」을 제작수출하기로 하고 성화와 장

지한에도 취급하기도하였고 공제부 자금 활동방법도 구체화시켰다.

이같이 적극적인 의안을 두 개한 회원들에게 선회장은 두 개로 十七號 二十四號 말씀으로 「傳道連合會」를 일컬어 하에 모든 감명을 주었다.

도 이번총회에는 임원선출의 자유집회 설교가 있어 많은 격려가 되었다.

총회원들은 일본전국에 산재한 고교구경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할것을 결심한 심의회의를 지휘하여 活潑의 성과를 올릴것을 약속하며 다음총회에 넘겨질경도 고려하기로 하고 주국되는 一步를 시작하였다.

現代人の欠陥

映画「現代」를 보고

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레이먼드 평화회원지도자들이 한다면 세계는 평화의세계를 바라는데 오늘에 아세아의 민족은 내일의 희망을 잃지 말고 이사업에 피차 협력하여 역세계나아가자.

佛國宣教師十名釋放

베트남 공산정부에 六年

베트남 공산정부는 五년八개월간 감금하였던 十名の 불탄서 성직자를 석방하였다. 이들 성직자는 一九四六年十二月 불

요사이 「現代人」이라는 영화가 공개되고 있다. 그 내용은 어떤 참한 청년이 관청에 취직하여 지내면서 병든정신이 심한 현대에 학봉으로는 유행하는 사회를 다룰수가 없어 때로는 뇌물을 받고 때로는 무서운 살인 혹은 방화(放火)를 대수놓지 않케 견속 반복하다가 바라던 가정의 행복을 고사하고 감옥에 드러 가고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잘못보면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보고하는 일만이 현실이라 하고 의 그것은 범죄를 하게되었을가 그 책임이 어디 있을가? 하는점을 모르고만다.

암튼 청년이 뇌물을 받고 살인과 방화도 예사로 하고 하게되었다는것은 미칠같이 되어진 현대사회에 암암의 인간이 자기와 자기가정에 행복을 이루려는 알뜰한마음의 도덕적 범죄할수밖에없이 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상(理想)을 상실하고 사회에대하여는 이권만 밖에 없다고 절망단념한후 자기중심의

佛國宣教師十名釋放

베트남 공산정부에 六年

베트남 공산정부는 五년八개월간 감금하였던 十名の 불탄서 성직자를 석방하였다. 이들 성직자는 一九四六年十二月 불

그러나 이 영화를 잘못보면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보고하는 일만이 현실이라 하고 의 그것은 범죄를 하게되었을가 그 책임이 어디 있을가? 하는점을 모르고만다.

암튼 청년이 뇌물을 받고 살인과 방화도 예사로 하고 하게되었다는것은 미칠같이 되어진 현대사회에 암암의 인간이 자기와 자기가정에 행복을 이루려는 알뜰한마음의 도덕적 범죄할수밖에없이 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상(理想)을 상실하고 사회에대하여는 이권만 밖에 없다고 절망단념한후 자기중심의

그러나 이 영화를 잘못보면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보고하는 일만이 현실이라 하고 의 그것은 범죄를 하게되었을가 그 책임이 어디 있을가? 하는점을 모르고만다.

암튼 청년이 뇌물을 받고 살인과 방화도 예사로 하고 하게되었다는것은 미칠같이 되어진 현대사회에 암암의 인간이 자기와 자기가정에 행복을 이루려는 알뜰한마음의 도덕적 범죄할수밖에없이 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상(理想)을 상실하고 사회에대하여는 이권만 밖에 없다고 절망단념한후 자기중심의

6臨時連絡處

關東地方

名古屋市中村區椿町四十八
在日大韓基督教會
名古屋教會
金 德 成

關西・西南地方

尼崎市今北小袋五七
在日大韓基督教會
武庫川教會
崔 正 洙

5入學方法

이 지나도록 공부하지 않고 입학금은 무효된다.

3 十二課本 초등과와 고등과를 마친이에게는 졸업장을 준다.

4 졸업장을 받은후에 본회의 주일학교 주회로 통학시켜 하기도 권장하다.

5 入學方法

입학하는 유족은 매우 단순하다. 누구든지 입학하기를 원하는 이는 주소와 성명을 기록하여 입학금 三課本을 첨부하여 본 교우회에 청구하면 입학이 허락되고 입학허락증서와 함께 통학시켜줄 보내도된다.

(입학할만한 자격은 한글을 보고 기록할수 있음)

在日韓國YMCA公告文 (2)

在日 日本韓國基督教青年會

一年間經過報告及事業報告書

一九五〇年十月一日 부터
一九五二年八月末日 까지

박정동총무 봉급조 수지상환 계산표

이종무봉급 二四萬九千八百圓
박정동총무봉급 二萬千圓
고정자산세 十
十九萬六千四百九十四圓
차입금이자환금 一
一萬七千七百圓
수리비미한계금 一萬五千圓
합계 六〇萬九千九百九十四圓
一九五〇年度下半期
收入月表 A
전년도조입금 十月 四三九、一三
小計 四三九、一三

在日韓國YMCA公告文 (2)

在日 日本韓國基督教青年會

一年間經過報告及事業報告書

一九五〇年十月一日 부터
一九五二年八月末日 까지

박정동총무 봉급조 수지상환 계산표

이종무봉급 二四萬九千八百圓
박정동총무봉급 二萬千圓
고정자산세 十
十九萬六千四百九十四圓
차입금이자환금 一
一萬七千七百圓
수리비미한계금 一萬五千圓
합계 六〇萬九千九百九十四圓
一九五〇年度下半期
收入月表 A
전년도조입금 十月 四三九、一三
小計 四三九、一三



放浪兒의感激 (2)

羅曾男

방랑에 소유했을 창전한후 남
루한것을 몸에 걸고 도라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당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자
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그 방랑
한 아들 같이 되고 말라"라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거던
이 들때 아들이 못 아버지
제로 도라올 일이다. "라고
훈화를 깨달았지라도 이 열
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이야기
임을 알수있는것이다.

이런 생기있는 이야기는 소
생인들 이 이상으로 나타낼 수
는 없을것이다.

우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보자 그 들때 아들이 재
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때 아
들의 성미를 아는 아버지가
앞길에 염여되는 예감이 없
리 없었으리라 몇번 말리다가
못지 않고 기어코 간다는메야
여제할수없이 고생되던 도라오
리라고 시련의길에 내어준것이
다. 아버지의 이 마음에 숨은
깊은 사랑을 볼수있는것이다.

오히려 삼가가 멀었으나 보
선발로 달려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것은 아

在日韓國基督教界의現狀

우리의 牧師 李鐘聲

셋째로 복음과 세계의 관계
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또 이해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피상적
이다. 그들의 대표적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국
가에 있는 한 종교결사임으
로 국가에 복종하거나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우익적
견해를 취시하여 "신앙의자유"
라 하지 않는 거기에는 한도가
있다는것 종교는 사회개선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

들리기 위한 이야기로 하
는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
에 비취쳐 하나님의 나라의진
리를 가르치려한것이다. 다시말
하면 이같이 사람이 넘치는
창 아버지는 하나님이라하는것
을 가르친것이다. 하나님은 이
당자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
고 방랑하는 인간을 그 요구
대로 자유행동을 하게 하시되
현재, 지면, 절망, 재화를 만나
면 도라오라 하시고 계시며
귀우치고 도라오면 언제나 지
난 죄를 눈과 같이 회개하고
무조건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시는것이다.

둘째 아들은 우리 인간의모
습이다. 하나님은 주신 재산을

국가에 필수 있는대로 종교를
관대히 취급할것 또 한편 교
회는 정치단체라던가 사회단체
와는 본질이 다르니 그런것과
는 관계를 맺지않고 교회만의
로서 거러갈것등 여러가지의의
견이 있다. 나는 생각하기를
교회와 국가에 있는 한 관
계라고 해서 국가의 정책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정
치가 이상의 폭언이며 또 종
교를 사회개선의 기구로 이용
하려는것은 외식적 휴머니티

로의 확언이며 교회를 고립주
의외 회생물로 삼으려는 것도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교회는
교회다. 이 이상의 것도 아니
오 이 이하의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에 대하여
의상적 견해를 같이 하는자는
교회외의 거족만 보고 그 내용
은 보지 않는자들의 말이다.
그러면 교회의 내용은 무엇인
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가 전한 기쁜 소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
다. 교회의 내용이 복음이라
할것 같으면 우리의 제목은
"교회와 세계"에서 "복음과
세계"로 변경되어야 하겠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내, 역사내에 있다.
역사는 인간행동의 궤적



學校學講座 教師와 그準備 (1) 魯安理

모든 근본문제는 결국은 우
리 교사의 문제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교사는 인정하게된
다. 교실이 불명암하거나 혹은
공부의 초과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거개가 다 우리 교사의
잘못에 기인하는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것이
며 교사된자가 허심탄회로 솔
직히 당하여야 할문제이다. 만
사에 솔직함이 종교교육에서는
절대 필요한데도다. 무슨일이
나 다 수처스킴다든지 뽐내는

기색을 띠것은 일 자체를 결
국 망치고 마는법이다. 재물위
는다고 교사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아니다. 교사가 천히 노력
을하여 그책이나 교안에서도욱
을 일으키고 애를때에라야 비
로소 이것들이 가치 있는 역
할을 하게되는것이다. 그러면교
사에게 필요한것은 어떤것일까
다음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문
제를 생각해보겠다.

一, 교사의 자격
(1) 종교를 가르칠려는 자는 한
도시 하나님을 믿어야함을 실

천으로 보일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며 사귀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살아가
시는 힘이심을 인식하며 동시
에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며
변이 되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예수께서는 천
히 모범으로 이것을 나타내
셨다. 그리고 그의 교훈의 중심
은 실로 이 점이었다. 이런
경험은 하루 이를 사이에 완
성되는것이아니나 우리는 일생
을 통하여 이 경향이 점차
더 풍부해 지도록 노력해야한
다.

(2) 교사는 또 감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실천할수 있
어야하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
의 가장 높은 목표이라는 신

념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보내대 교사를 가운데 이 정
에 있어서 자라에 관하여 주
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누
구나 없이 실패할 때가 어찌
없으랴마는 그렇다 하여 이러
한 확신을 얻지 못할것은 없는
것이다. 감하고 형려적이며 또
도움성있는 생활은 곧 그리스
도를 본받는 생활이니 만인이
이에 도달기 위하여 다 같이
분투하여야 하는 이상(理想)
이요 목표인것이다.

(3) 교사는 그 학생의 참된
부모와 같은 태도로 학생을
대하여야 한다. 그는 차별이
없는 것은 사랑을 매 학생에
게 가져야 하며 민청한 관심
을 항상 잃지 말아야하며 비
록 그들에게 약점이나 과실이

韓國教會와의親交

최근로 세계의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일감정이 심하여 부산에는 한일시위행렬이 있었으며 일방자의 편을 도아 주었다하여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이 사면을 하지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일본에서는 외국인 동포를 부 문제도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한일양국간(韓日兩國間)의 문제는 상스럽지 못한것이 있다. 여기에 기독교인으로 생 각할 문제는 없을까 일본기독교 신보에는 요지 다음과 같 은 논설이 실려있다.

『우리나라(日本)에 가장 가까운 외국은 한국이다. 예전 관두연락선을 하면 7시간만에 건너갈수있고 건너올수있다. 거

사상의 연속뿐만 아니라 그 인간행동을 좌우하는 초인간적 「무엇」이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의 깊이와 넓이의 다 소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되어가며 누가 역사를 만드는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신앙은 처음부터 마조막까지 변함없이 주장되어왔다. 역사를 만드는 이 하나님은 즉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내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을수 있다는 신뢰를 버려서는 안된다. 예수께서 가장 결점이 많은 인간속 에 바위같은 성품을 뽐낼수 있었었고 혹은 정결하고 인자 한 마음을 찾아내는 능력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심지의 자 그의 제자들의 실패할것을 예견하면서 그들도장사는 하나 님의 나라의 사업을 유지하리 라는 굳은 신뢰를 관철하셨던 것이었다.

우리는 종교의 교사로 성서와 자연계와 인간생활과 경 술적 관한 지식과 감성(感興)을 정제된 것이 하도독 스 사도 노역하여야한다. 하나님께 서는 이런것을 옹호해 자기자 신을 만민에게 계시하고 계시

리로만 이같이 가짜를만 아 니라 일종의 언어와 생활에도 멀리아니하다. 때로는 정제적이 었으나 동조론(同調論)까지 도나왔다. 그러나 정제뿐만 아니코 인류학상으로 세계 어 나나라보다 근사하다. 이같이 가까운 한일인(韓日人)사이가 멀리 느껴지는것이 최근의 사 설이다. 이같이 열매가파울 기 때문에 파운다르 장려주는 말하였다. 이것은 숙명적인것인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 숙명 이 영국 기독교간에도 있는것 이 아닌가 그리스도안에서는 그런 장벽이 허물러져야 할것 이다. 한일 양국 기독교 형제 에는 새로운교회가 가능할것이다

임재하신다하니 역사의 존재인 인간은 이 그리스도를 중심하 여서 살지않으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나 세계(역사)는 복음 (그리스도)을 떠나서 자행자 지하여서 많은 죄를 범한 결 과 멸망의 종자를 내포하고있 다. 지금 이 종자가 나날이 장성하고 있으니 이 멸망의 종자가 결실할 때에 세계는 멸망받는다. 다만 이 멸망의 종자가 결실치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영생의 과실을 맺게하 는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므

로 복음을 생명으로 가지는 교회는 세계를 따라서 역사를 주 인류를 구원할 중한 책무 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복음은 지상천 세에 일을 막아서는 아니되며 스사로 고립주의에 가담하여, 일정한 자들에게만 향하여서는 아니되는것이다.

이상에서 나는 세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았으나 그외에도 우리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 많이 있을것이다. 예를 들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실패 하였다던가 성격적으로 외약에 빠졌다던가 등 그러나 복음앞에 는 도덕도 쓸데없고 성격도 무력이다. 인간의 제정한 모든 것이 복음의 빛에 녹아지고 만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가지 살 방법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복음에 사는것이며 복음을 먹 는것 밖에는 이 이상에서 찾 어 볼수없다.

그리스도 교회는 양국의원선 에 최선의노력을 할때다. 양국 민의 이차소통이 없고 우호관 계가 성립할 때는 한일회담 에 기대도 크다.

그보다 먼저 양국교회는 국 교(國交)재개에 앞서 손을잡 아야 한다.

다음으로 양국교회는 대등한 입장에서 손잡을수있는 기회가 지금에도 얼마아한다. 과거三十 六년간은 동(東)이 였다고본 다.

양국합령시에는 국제적 파라 선우목사로 한국에 파도가 한 국인들의 신뢰를 상실하였을일 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것이 없는때이다. 파차의 행복을 위 하며 생각할 일이다.

오는 교단총회에서 한국교회 문안사절(韓國教會團安使節)을 보낼것이 토의 결정되기를 바 람나. 필자는(北)이라 적혀있 다.

그러나 이점을 알면서도 성년들은 왜 스사로 이 방법 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지않 을까 타민에 빠져있을까? 해방 을 받은 신앙의 전희의 기상 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안에서 살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등 지고 복음안에서 죽는길 밖에 우리의 살길이 이 지상에 도 있을것인가?

그러나 이점을 알면서도 성년들은 왜 스사로 이 방법 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지않 을까 타민에 빠져있을까? 해방 을 받은 신앙의 전희의 기상 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안에서 살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등 지고 복음안에서 죽는길 밖에 우리의 살길이 이 지상에 도 있을것인가?

월료	十月 六	四八五圓	작업금	九〇〇〇圓
十二月七	五三〇圓	合計	五六四圓	四七二〇〇
小計	一四二一五圓	一九五一年度支出表	미	
當分	十月	二二〇圓	총무부금	一〇四〇〇〇
十一月	千圓	當分	五二一五〇〇	
十二月	千圓	當分	四七八〇〇	
小計	四千圓	當分	三六〇〇〇	
회비	十月	一萬八千圓	當分	五八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千圓	當分	三三八〇〇
當分	十一月	八千圓	當分	九〇一八〇
當分	十月	一萬四千五百圓	當分	七二二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〇九四九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一九九四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三九四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四一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五一一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〇九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六〇四一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一五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五〇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一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二月	一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小計	三萬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合計	六四、九〇四、一三	當分	二九六〇〇〇	
一九五〇年度下半年計額		當分	二九六〇〇〇	
支分月別表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月	一四〇〇〇圓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十一月	五〇〇〇	當分	二九六〇〇〇
當分				

한글의再認識 (3)

張 鳳 仙

文教部 選定 新千字

한글 전용법은, 이미 1949년에 국
회에 통과하였으나, 수천년동안 한문
자 속에 살던 우리문화가, 갑자기
한글 전용으로 실시하게 되며, 다소
의 불편한 점도 적지않으나, 그 반
면에 한글문화, 즉 우리문화 전체를
불태워, 손해되는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문자도 당분간
써도 좋다는것이, 함께 써야 된다는
혁명에 이르러, 수년간 무제한으로
쓰는 한편, 한문자 1,000 자 안이
연구되던중, 1951년 12월에 문교부에서
발표하여, 각신문사에서 1,000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있다. 그
러나, 어떤 신문은 순전한 한글로
인쇄하는 곳도 있다. 이와같이, 한지
를 사용한다면, 최대한도 1,000 자로
하고, 특수한 인쇄외에는, 될수있는대
로, 아니 꼭다시 한글 전용으로 하
는 것이, 한글문화 전체로 불태워,

얻는 것이 더 많은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한자제도 온자 「정자」와
반자「약자」가 있는데, 약자를 사용
하는일에 일본식이라고하여, 반대한다
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보다도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정자로는 회수
가 상당히 많은것도 약자로는 회수
가 적어서 깨끗한 인쇄가 되는 동
시에, 난시를 적게하는 일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증명하는것이다.
새천자는 문교부에서, 한자제도를
목표로 하는 근본정책에 따라서, 그
과도적 조치로서, 다음과같이 선정하
였다. 옛천자는, 지금으로 1,400 년전
중국 주효사가, 그시대에 적당한 것
을 만드렸는데, 옛천자에는, 새천자에
있는 글자가, 495 자, 새천자에 없는
글자가, 502자이다. 이 밖에, 고유명사
에 사용할 글자가, 약 400자가 준비
되어있다.

原文一覽表

(1) 一	(2) 二	(3) 三	(4) 四	(5) 五	(6) 六	(7) 七	(8) 八	(9) 九	(10) 十	(11) 百	(12) 千	(13) 萬	(14) 億	(15) 兆	(16) 京	(17) 垓	(18) 秭	(19) 穰	(20) 溝	(21) 澗	(22) 塵	(23) 沙	(24) 劫	(25) 沙	(26) 劫	(27) 沙	(28) 劫	(29) 沙	(30) 劫	(31) 沙	(32) 劫	(33) 沙	(34) 劫	(35) 沙	(36) 劫	(37) 沙	(38) 劫	(39) 沙	(40) 劫	(41) 沙	(42) 劫	(43) 沙	(44) 劫	(45) 沙	(46) 劫	(47) 沙	(48) 劫	(49) 沙	(50) 劫	(51) 沙	(52) 劫	(53) 沙	(54) 劫	(55) 沙	(56) 劫	(57) 沙	(58) 劫	(59) 沙	(60) 劫	(61) 沙	(62) 劫	(63) 沙	(64) 劫	(65) 沙	(66) 劫	(67) 沙	(68) 劫	(69) 沙	(70) 劫	(71) 沙	(72) 劫	(73) 沙	(74) 劫	(75) 沙	(76) 劫	(77) 沙	(78) 劫	(79) 沙	(80) 劫	(81) 沙	(82) 劫	(83) 沙	(84) 劫	(85) 沙	(86) 劫	(87) 沙	(88) 劫	(89) 沙	(90) 劫	(91) 沙	(92) 劫	(93) 沙	(94) 劫	(95) 沙	(96) 劫	(97) 沙	(98) 劫	(99) 沙	(100) 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時感

거짓預言者

J. E. F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

지금부터 나는 이 난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이
라는 것과 또 갈·압쓰야 말
로 과거 수천년 사이에 있어
그 재일 가는 거짓 선지자이
라고 말하였다. 지금 여기 있
어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도라다니는 「속에
노략질하는 일하」라는 것을
설명하려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과거 몇해를
통해서 평화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양의 가죽을 입고
다니는 가장 흉악한 계획의
출몰한 전분이라고 할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평화에 굶주려가는 세계를 속
이는것이다. 이 이른바 「평화
대회」라고 하는것을 때때로
세계의 중요한 도시에서 개최
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출석하도록
해서 그 대회의 명성과 위신
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이
「평화대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그들이 실제로 하고있
는 일은 전쟁이 생겨질수 있
는 방편의 것만이다. 그들은
이 대회에서 여러날을 두고

당신이 문 밖에 와서 두다였어도
내가 미처 듣지를 못하였습니까?
당신이 부드런 음성으로 불렀는데
내가 대답을 안하였습니까?
당신이 흰 눈을 밝고 창바깥을 지나갔어도
내가 미처 보지를 못하였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서 손짓하는 흰손을
당신이 나를 찾아서 손짓하는 흰손을

艷書

第四號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근
거없는 악선전과 중오심을 격
발하는 연설을 하고있는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오
심을 이르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에 거짓을 쌓고 또 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 평
화대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하느니 만큼 세계 만
은 인원을 속여서 공산주의자
들이 사실 평화를 원하는것
같이 믿게하려고 하는것이다.
사실 평화를 원하고 있는것
대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화
도 공산주의자 한부층에서는
내가 대답지를 못하였습니까
아름다운 나의이름이요!
마음일랑 안마하히 당신을
찾아서 해매길 더하였거늘.....
이제 당신은 정녕 문외교를어서라,
그리고 나의 앞에 고운 얼굴을 보이라!
밤과 밤을 이어간 괴물이 고쳐이
나로하여곰 그대 미정같은
이마에 입 맞추기위하여.....

朴和穆

高根紅 (41) 榮花 (42) 榮花 (43) 榮花 (44) 榮花 (45) 榮花 (46) 榮花 (47) 榮花 (48) 榮花 (49) 榮花 (50) 榮花 (51) 榮花 (52) 榮花 (53) 榮花 (54) 榮花 (55) 榮花 (56) 榮花 (57) 榮花 (58) 榮花 (59) 榮花 (60) 榮花 (61) 榮花 (62) 榮花 (63) 榮花 (64) 榮花 (65) 榮花 (66) 榮花 (67) 榮花 (68) 榮花 (69) 榮花 (70)	榮花 (71) 榮花 (72) 榮花 (73) 榮花 (74) 榮花 (75) 榮花 (76) 榮花 (77) 榮花 (78) 榮花 (79) 榮花 (80) 榮花 (81) 榮花 (82) 榮花 (83) 榮花 (84) 榮花 (85) 榮花 (86) 榮花 (87) 榮花 (88) 榮花 (89) 榮花 (90) 榮花 (91) 榮花 (92) 榮花 (93) 榮花 (94) 榮花 (95) 榮花 (96) 榮花 (97) 榮花 (98) 榮花 (99) 榮花 (100)	榮花 (101) 榮花 (102) 榮花 (103) 榮花 (104) 榮花 (105) 榮花 (106) 榮花 (107) 榮花 (108) 榮花 (109) 榮花 (110) 榮花 (111) 榮花 (112) 榮花 (113) 榮花 (114) 榮花 (115) 榮花 (116) 榮花 (117) 榮花 (118) 榮花 (119) 榮花 (120) 榮花 (121) 榮花 (122) 榮花 (123) 榮花 (124) 榮花 (125) 榮花 (126) 榮花 (127) 榮花 (128) 榮花 (129) 榮花 (130)	榮花 (131) 榮花 (132) 榮花 (133) 榮花 (134) 榮花 (135) 榮花 (136) 榮花 (137) 榮花 (138) 榮花 (139) 榮花 (140) 榮花 (141) 榮花 (142) 榮花 (143) 榮花 (144) 榮花 (145) 榮花 (146) 榮花 (147) 榮花 (148) 榮花 (149) 榮花 (150) 榮花 (151) 榮花 (152) 榮花 (153) 榮花 (154) 榮花 (155) 榮花 (156) 榮花 (157) 榮花 (158) 榮花 (159) 榮花 (160)	榮花 (161) 榮花 (162) 榮花 (163) 榮花 (164) 榮花 (165) 榮花 (166) 榮花 (167) 榮花 (168) 榮花 (169) 榮花 (170) 榮花 (171) 榮花 (172) 榮花 (173) 榮花 (174) 榮花 (175) 榮花 (176) 榮花 (177) 榮花 (178) 榮花 (179) 榮花 (180) 榮花 (181) 榮花 (182) 榮花 (183) 榮花 (184) 榮花 (185) 榮花 (186) 榮花 (187) 榮花 (188) 榮花 (189) 榮花 (190)	榮花 (191) 榮花 (192) 榮花 (193) 榮花 (194) 榮花 (195) 榮花 (196) 榮花 (197) 榮花 (198) 榮花 (199) 榮花 (200) 榮花 (201) 榮花 (202) 榮花 (203) 榮花 (204) 榮花 (205) 榮花 (206) 榮花 (207) 榮花 (208) 榮花 (209) 榮花 (210) 榮花 (211) 榮花 (212) 榮花 (213) 榮花 (214) 榮花 (215) 榮花 (216) 榮花 (217) 榮花 (218) 榮花 (219) 榮花 (220)	榮花 (221) 榮花 (222) 榮花 (223) 榮花 (224) 榮花 (225) 榮花 (226) 榮花 (227) 榮花 (228) 榮花 (229) 榮花 (230) 榮花 (231) 榮花 (232) 榮花 (233) 榮花 (234) 榮花 (235) 榮花 (236) 榮花 (237) 榮花 (238) 榮花 (239) 榮花 (240) 榮花 (241) 榮花 (242) 榮花 (243) 榮花 (244) 榮花 (245) 榮花 (246) 榮花 (247) 榮花 (248) 榮花 (249) 榮花 (250)	榮花 (251) 榮花 (252) 榮花 (253) 榮花 (254) 榮花 (255) 榮花 (256) 榮花 (257) 榮花 (258) 榮花 (259) 榮花 (260) 榮花 (261) 榮花 (262) 榮花 (263) 榮花 (264) 榮花 (265) 榮花 (266) 榮花 (267) 榮花 (268) 榮花 (269) 榮花 (270) 榮花 (271) 榮花 (272) 榮花 (273) 榮花 (274) 榮花 (275) 榮花 (276) 榮花 (277) 榮花 (278) 榮花 (279) 榮花 (280)	榮花 (281) 榮花 (282) 榮花 (283) 榮花 (284) 榮花 (285) 榮花 (286) 榮花 (287) 榮花 (288) 榮花 (289) 榮花 (290) 榮花 (291) 榮花 (292) 榮花 (293) 榮花 (294) 榮花 (295) 榮花 (296) 榮花 (297) 榮花 (298) 榮花 (299) 榮花 (300) 榮花 (301) 榮花 (302) 榮花 (303) 榮花 (304) 榮花 (305) 榮花 (306) 榮花 (307) 榮花 (308) 榮花 (309) 榮花 (310)	榮花 (311) 榮花 (312) 榮花 (313) 榮花 (314) 榮花 (315) 榮花 (316) 榮花 (317) 榮花 (318) 榮花 (319) 榮花 (320) 榮花 (321) 榮花 (322) 榮花 (323) 榮花 (324) 榮花 (325) 榮花 (326) 榮花 (327) 榮花 (328) 榮花 (329) 榮花 (330) 榮花 (331) 榮花 (332) 榮花 (333) 榮花 (334) 榮花 (335) 榮花 (336) 榮花 (337) 榮花 (338) 榮花 (339) 榮花 (340)	榮花 (341) 榮花 (342) 榮花 (343) 榮花 (344) 榮花 (345) 榮花 (346) 榮花 (347) 榮花 (348) 榮花 (349) 榮花 (350) 榮花 (351) 榮花 (352) 榮花 (353) 榮花 (354) 榮花 (355) 榮花 (356) 榮花 (357) 榮花 (358) 榮花 (359) 榮花 (360) 榮花 (361) 榮花 (362) 榮花 (363) 榮花 (364) 榮花 (365) 榮花 (366) 榮花 (367) 榮花 (368) 榮花 (369) 榮花 (370)	榮花 (371) 榮花 (372) 榮花 (373) 榮花 (374) 榮花 (375) 榮花 (376) 榮花 (377) 榮花 (378) 榮花 (379) 榮花 (380) 榮花 (381) 榮花 (382) 榮花 (383) 榮花 (384) 榮花 (385) 榮花 (386) 榮花 (387) 榮花 (388) 榮花 (389) 榮花 (390) 榮花 (391) 榮花 (392) 榮花 (393) 榮花 (394) 榮花 (395) 榮花 (396) 榮花 (397) 榮花 (398) 榮花 (399) 榮花 (400)	榮花 (401) 榮花 (402) 榮花 (403) 榮花 (404) 榮花 (405) 榮花 (406) 榮花 (407) 榮花 (408) 榮花 (409) 榮花 (410) 榮花 (411) 榮花 (412) 榮花 (413) 榮花 (414) 榮花 (415) 榮花 (416) 榮花 (417) 榮花 (418) 榮花 (419) 榮花 (420) 榮花 (421) 榮花 (422) 榮花 (423) 榮花 (424) 榮花 (425) 榮花 (426) 榮花 (427) 榮花 (428) 榮花 (429) 榮花 (430)	榮花 (431) 榮花 (432) 榮花 (433) 榮花 (434) 榮花 (435) 榮花 (436) 榮花 (437) 榮花 (438) 榮花 (439) 榮花 (440) 榮花 (441) 榮花 (442) 榮花 (443) 榮花 (444) 榮花 (445) 榮花 (446) 榮花 (447) 榮花 (448) 榮花 (449) 榮花 (450) 榮花 (451) 榮花 (452) 榮花 (453) 榮花 (454) 榮花 (455) 榮花 (456) 榮花 (457) 榮花 (458) 榮花 (459) 榮花 (460)	榮花 (461) 榮花 (462) 榮花 (463) 榮花 (464) 榮花 (465) 榮花 (466) 榮花 (467) 榮花 (468) 榮花 (469) 榮花 (470) 榮花 (471) 榮花 (472) 榮花 (473) 榮花 (474) 榮花 (475) 榮花 (476) 榮花 (477) 榮花 (478) 榮花 (479) 榮花 (480) 榮花 (481) 榮花 (482) 榮花 (483) 榮花 (484) 榮花 (485) 榮花 (486) 榮花 (487) 榮花 (488) 榮花 (489) 榮花 (490)	榮花 (491) 榮花 (492) 榮花 (493) 榮花 (494) 榮花 (495) 榮花 (496) 榮花 (497) 榮花 (498) 榮花 (499) 榮花 (500) 榮花 (501) 榮花 (502) 榮花 (503) 榮花 (504) 榮花 (505) 榮花 (506) 榮花 (507) 榮花 (508) 榮花 (509) 榮花 (510) 榮花 (511) 榮花 (512) 榮花 (513) 榮花 (514) 榮花 (515) 榮花 (516) 榮花 (517) 榮花 (518) 榮花 (519) 榮花 (520)	榮花 (521) 榮花 (522) 榮花 (523) 榮花 (524) 榮花 (525) 榮花 (526) 榮花 (527) 榮花 (528) 榮花 (529) 榮花 (530) 榮花 (531) 榮花 (532) 榮花 (533) 榮花 (534) 榮花 (535) 榮花 (536) 榮花 (537) 榮花 (538) 榮花 (539) 榮花 (540) 榮花 (541) 榮花 (542) 榮花 (543) 榮花 (544) 榮花 (545) 榮花 (546) 榮花 (547) 榮花 (548) 榮花 (549) 榮花 (550)	榮花 (551) 榮花 (552) 榮花 (553) 榮花 (554) 榮花 (555) 榮花 (556) 榮花 (557) 榮花 (558) 榮花 (559) 榮花 (560) 榮花 (561) 榮花 (562) 榮花 (563) 榮花 (564) 榮花 (565) 榮花 (566) 榮花 (567) 榮花 (568) 榮花 (569) 榮花 (570) 榮花 (571) 榮花 (572) 榮花 (573) 榮花 (574) 榮花 (575) 榮花 (576) 榮花 (577) 榮花 (578) 榮花 (579) 榮花 (580)	榮花 (581) 榮花 (582) 榮花 (583) 榮花 (584) 榮花 (585) 榮花 (586) 榮花 (587) 榮花 (588) 榮花 (589) 榮花 (590) 榮花 (591) 榮花 (592) 榮花 (593) 榮花 (594) 榮花 (595) 榮花 (596) 榮花 (597) 榮花 (598) 榮花 (599) 榮花 (600) 榮花 (601) 榮花 (602) 榮花 (603) 榮花 (604) 榮花 (605) 榮花 (606) 榮花 (607) 榮花 (608) 榮花 (609) 榮花 (610)	榮花 (611) 榮花 (612) 榮花 (613) 榮花 (614) 榮花 (615) 榮花 (616) 榮花 (617) 榮花 (618) 榮花 (619) 榮花 (620) 榮花 (621) 榮花 (622) 榮花 (623) 榮花 (624) 榮花 (625) 榮花 (626) 榮花 (627) 榮花 (628) 榮花 (629) 榮花 (630) 榮花 (631) 榮花 (632) 榮花 (633) 榮花 (634) 榮花 (635) 榮花 (636) 榮花 (637) 榮花 (638) 榮花 (639) 榮花 (640)	榮花 (641) 榮花 (642) 榮花 (643) 榮花 (644) 榮花 (645) 榮花 (646) 榮花 (647) 榮花 (648) 榮花 (649) 榮花 (650) 榮花 (651) 榮花 (652) 榮花 (653) 榮花 (654) 榮花 (655) 榮花 (656) 榮花 (657) 榮花 (658) 榮花 (659) 榮花 (660) 榮花 (661) 榮花 (662) 榮花 (663) 榮花 (664) 榮花 (665) 榮花 (666) 榮花 (667) 榮花 (668) 榮花 (669) 榮花 (670)	榮花 (671) 榮花 (672) 榮花 (673) 榮花 (674) 榮花 (675) 榮花 (676) 榮花 (677) 榮花 (678) 榮花 (679) 榮花 (680) 榮花 (681) 榮花 (682) 榮花 (683) 榮花 (684) 榮花 (685) 榮花 (686) 榮花 (687) 榮花 (688) 榮花 (689) 榮花 (690) 榮花 (691) 榮花 (692) 榮花 (693) 榮花 (694) 榮花 (695) 榮花 (696) 榮花 (697) 榮花 (698) 榮花 (699) 榮花 (700)	榮花 (701) 榮花 (702) 榮花 (703) 榮花 (704) 榮花 (705) 榮花 (706) 榮花 (707) 榮花 (708) 榮花 (709) 榮花 (710) 榮花 (711) 榮花 (712) 榮花 (713) 榮花 (714) 榮花 (715) 榮花 (716) 榮花 (717) 榮花 (718) 榮花 (719) 榮花 (720) 榮花 (721) 榮花 (722) 榮花 (723) 榮花 (724) 榮花 (725) 榮花 (726) 榮花 (727) 榮花 (728) 榮花 (729) 榮花 (730)	榮花 (731) 榮花 (732) 榮花 (733) 榮花 (734) 榮花 (735) 榮花 (736) 榮花 (737) 榮花 (738) 榮花 (739) 榮花 (740) 榮花 (741) 榮花 (742) 榮花 (743) 榮花 (744) 榮花 (745) 榮花 (746) 榮花 (747) 榮花 (748) 榮花 (749) 榮花 (750) 榮花 (751) 榮花 (752) 榮花 (753) 榮花 (754) 榮花 (755) 榮花 (756) 榮花 (757) 榮花 (758) 榮花 (759) 榮花 (760)	榮花 (761) 榮花 (762) 榮花 (763) 榮花 (764) 榮花 (765) 榮花 (766) 榮花 (767) 榮花 (768) 榮花 (769) 榮花 (770) 榮花 (771) 榮花 (772) 榮花 (773) 榮花 (774) 榮花 (775) 榮花 (776) 榮花 (777) 榮花 (778) 榮花 (779) 榮花 (780) 榮花 (781) 榮花 (782) 榮花 (783) 榮花 (784) 榮花 (785) 榮花 (786) 榮花 (787) 榮花 (788) 榮花 (789) 榮花 (790)	榮花 (791) 榮花 (792) 榮花 (793) 榮花 (794) 榮花 (795) 榮花 (796) 榮花 (797) 榮花 (798) 榮花 (799) 榮花 (800) 榮花 (801) 榮花 (802) 榮花 (803) 榮花 (804) 榮花 (805) 榮花 (806) 榮花 (807) 榮花 (808) 榮花 (809) 榮花 (810) 榮花 (811) 榮花 (812) 榮花 (813) 榮花 (814) 榮花 (815) 榮花 (816) 榮花 (817) 榮花 (818) 榮花 (819) 榮花 (820)	榮花 (821) 榮花 (822) 榮花 (823) 榮花 (824) 榮花 (825) 榮花 (826) 榮花 (827) 榮花 (828) 榮花 (829) 榮花 (830) 榮花 (831) 榮花 (832) 榮花 (833) 榮花 (834) 榮花 (835) 榮花 (836) 榮花 (837) 榮花 (838) 榮花 (839) 榮花 (840) 榮花 (841) 榮花 (842) 榮花 (843) 榮花 (844) 榮花 (845) 榮花 (846) 榮花 (847) 榮花 (848) 榮花 (849) 榮花 (850)	榮花 (851) 榮花 (852) 榮花 (853) 榮花 (854) 榮花 (855) 榮花 (856) 榮花 (857) 榮花 (858) 榮花 (859) 榮花 (860) 榮花 (861) 榮花 (862) 榮花 (863) 榮花 (864) 榮花 (865) 榮花 (866) 榮花 (867) 榮花 (868) 榮花 (869) 榮花 (870) 榮花 (871) 榮花 (872) 榮花 (873) 榮花 (874) 榮花 (875) 榮花 (876) 榮花 (877) 榮花 (878) 榮花 (879) 榮花 (880)	榮花 (881) 榮花 (882) 榮花 (883) 榮花 (884) 榮花 (885) 榮花 (886) 榮花 (887) 榮花 (888) 榮花 (889) 榮花 (890) 榮花 (891) 榮花 (892) 榮花 (893) 榮花 (894) 榮花 (895) 榮花 (896) 榮花 (897) 榮花 (898) 榮花 (899) 榮花 (900) 榮花 (901) 榮花 (902) 榮花 (903) 榮花 (904) 榮花 (905) 榮花 (906) 榮花 (907) 榮花 (908) 榮花 (909) 榮花 (910)	榮花 (911) 榮花 (912) 榮花 (913) 榮花 (914) 榮花 (915) 榮花 (916) 榮花 (917) 榮花 (918) 榮花 (919) 榮花 (920) 榮花 (921) 榮花 (922) 榮花 (923) 榮花 (924) 榮花 (925) 榮花 (926) 榮花 (927) 榮花 (928) 榮花 (929) 榮花 (930) 榮花 (931) 榮花 (932) 榮花 (933) 榮花 (934) 榮花 (935) 榮花 (936) 榮花 (937) 榮花 (938) 榮花 (939) 榮花 (940)	榮花 (941) 榮花 (942) 榮花 (943) 榮花 (944) 榮花 (945) 榮花 (946) 榮花 (947) 榮花 (948) 榮花 (949) 榮花 (950) 榮花 (951) 榮花 (952) 榮花 (953) 榮花 (954) 榮花 (955) 榮花 (956) 榮花 (957) 榮花 (958) 榮花 (959) 榮花 (960) 榮花 (961) 榮花 (962) 榮花 (963) 榮花 (964) 榮花 (965) 榮花 (966) 榮花 (967) 榮花 (968) 榮花 (969) 榮花 (970)	榮花 (971) 榮花 (972) 榮花 (973) 榮花 (974) 榮花 (975) 榮花 (976) 榮花 (977) 榮花 (978) 榮花 (979) 榮花 (980) 榮花 (981) 榮花 (982) 榮花 (983) 榮花 (984) 榮花 (985) 榮花 (986) 榮花 (987) 榮花 (988) 榮花 (989) 榮花 (990) 榮花 (991) 榮花 (992) 榮花 (993) 榮花 (994) 榮花 (995) 榮花 (996) 榮花 (997) 榮花 (998) 榮花 (999) 榮花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현해서 하는 모든 말이
성실스러운지는 알수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심히
무지한 사람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를 부인하여야
할 재료가 너무 많고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권좌에
리 성당의 광복의 자리에까지
앞게 되었는가 하는것은 해석
하기 어려운 일이다. 좌우간
그가 무지하며 그것인지 혹은
코의적으로 그것인지는 별론과
다 하고 그가 모스크의 앞장
이가 되었다는것은 그가 양의
가죽을 입은 일리학에 아도것
도 아니라는것만은 틀림없는것
이다. 그는 그가 가진 그
교회와 높은 지위와 또 신성
한 사명의 무게를 가져 철학
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힘조하
고 있는것이다. 그전으로 그는
한국 해방과 여러나라 군사를
매제 죽을과 파괴를 가져오는
악랄하는 철학로다 조종도 다
은것이 없다고 할수있다.

우리는共產主義를 支持할理由가있을가

준 · 벤 · 벨

여기 다시 마즈락 질문이 있
다. 이제 공산주의가 이 부식
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다
소 이익이 될만한 무엇인가
저울수 있는 변혁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기독교인
으로서 지금 정치적으로 아모
다른 노선이 보이지 않는 나
라에 산다고 하면 이 기독교
인은 어떻게 할것이나 하는것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
을수 있도록 돕지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대답은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하는 대답이기 때
문에 그것은 경우가 좀 다르
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나 나의 대답은 역시 같
은것이다. 먼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
도록 돕는다는것은 오늘날 공산
주의가 어떻게 문화와 개인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사실을
볼때에 도모지 용인될수 없다
문화와 정신면에 대한 공산주
의의 철저한 것은 언제나 큰
위협이다. 공산주의가 이미 정
권을 잡는데 있어 그것도 하
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목